

Executive Dashboard

글로벌 금융 시장 대시보드: 양대 힘의 줄다리기

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펀더멘털의 충돌,
그리고 국내 증시의 파급 효과 (2026. 08. 08)



하방 압력 / 지정학적 리스크

- **호르무즈 불확실성 & 중동 긴장 고조**

위험자산(유가, 금, 비트코인) 급등,
국채 금리 상승(매파적 기조).



- 국내 코스피/코스닥 투심 위축 및
신용융자 잔고 증가.



상방 모멘텀 / 펀더멘털 회복

- **美 고용 쇼크 우려 완화 & 서비스업 호조**

나스닥 선물 상승, CFRA S&P 500
연말 목표치 상향(8,050).



- 중화권(중국/홍콩) 및 유럽 증시의
견조한 상승세.



WTI 원유

\$76.73 **+\$2.62 ↑**

Signal: 이란 선별통항 논란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

미 국채 10Y

4.676% **+5bp ↑**

Signal: FOMC 매파 기조 반영

금 (XAU)

\$4 **+\$18 ↑**

Signal: 1월 이후 최고치, 중앙은행 매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

비트코인

\$103,000 **+\$1,240 ↑**

Signal: ETF 순유입 지속

원/달러 환율

₩1,422.89 **-5.30원 ↓**

Signal: 달러 약세(달러인덱스 0.5, -0.32) 반영

EUR/USD

1.1559 **+0.0031 ↑**

Signal: ECB 금리 경로 재평가

유럽 (강세)

DAX 24,998 (+0.80%), FTSE 100 10,556 (+0.79%)
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 및 방산주 강세.

중국/홍콩 (투심 회복)

항셱 22,944 (+1.59%), 상하이 3,215 (+0.45%)

막대한 자금 투입 '드림팀' 구축.

미국 (혼조세/관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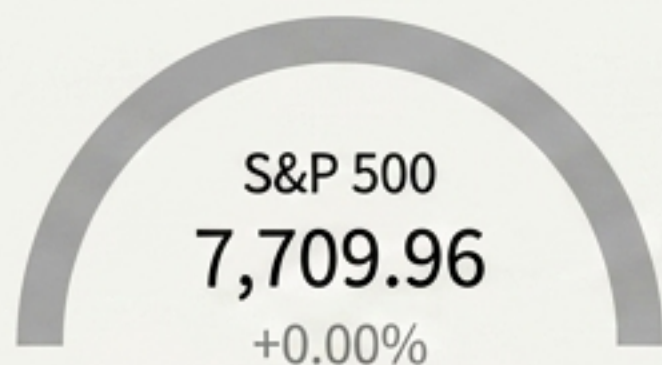
DOW (+0.58%), S&P/NASDAQ (보합)

고용 충격 완화 vs 중동 악재의
팽팽한 줄다리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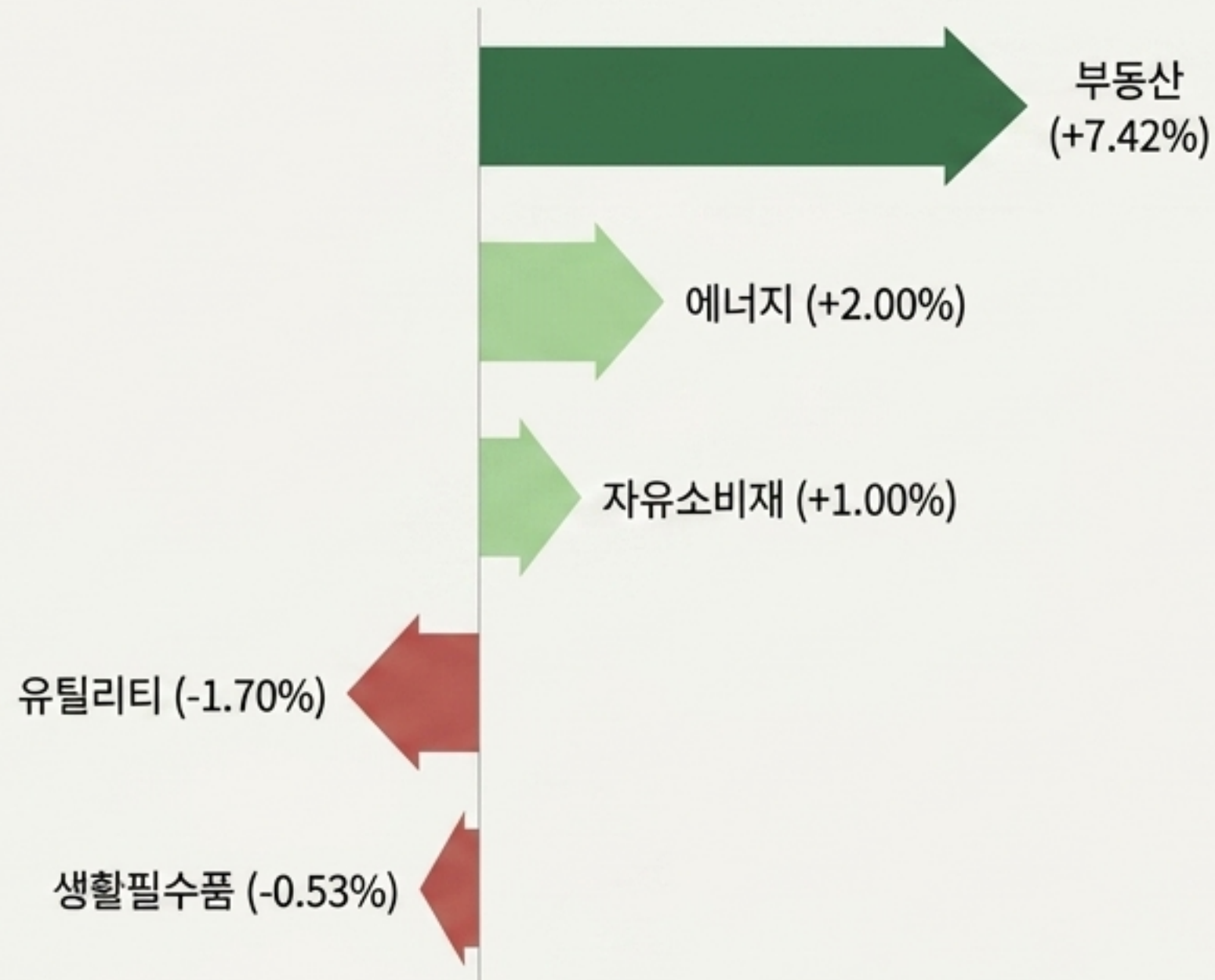
한국/아시아 (취약/자금 이탈)

KOSPI 최악의 주간 손실, 닛케이 (-0.12%)

SK하이닉스 주도 아시아 주식 발행
830억 달러 (자금 쏠림 현상).



→ CFRA 연말 목표치: 8,050
상향 (강세장 더 간다)



호르무즈 리스크가 지수를 압박하고 있으나, 금리 인상 우려 후퇴가 나스닥 선물을 1%대 끌어올리며 하방을 강력히 지지 중.

국내 증시 현황: 극심한 변동성 속 하방 압력

사이드카(가격 급등 방지 장치) 부재로 인한 변동성 증폭

주요 지수 및 수급 현황

KOSPI: 6,258.77 (-0.60%)

KOSDAQ: 798.81 (-0.3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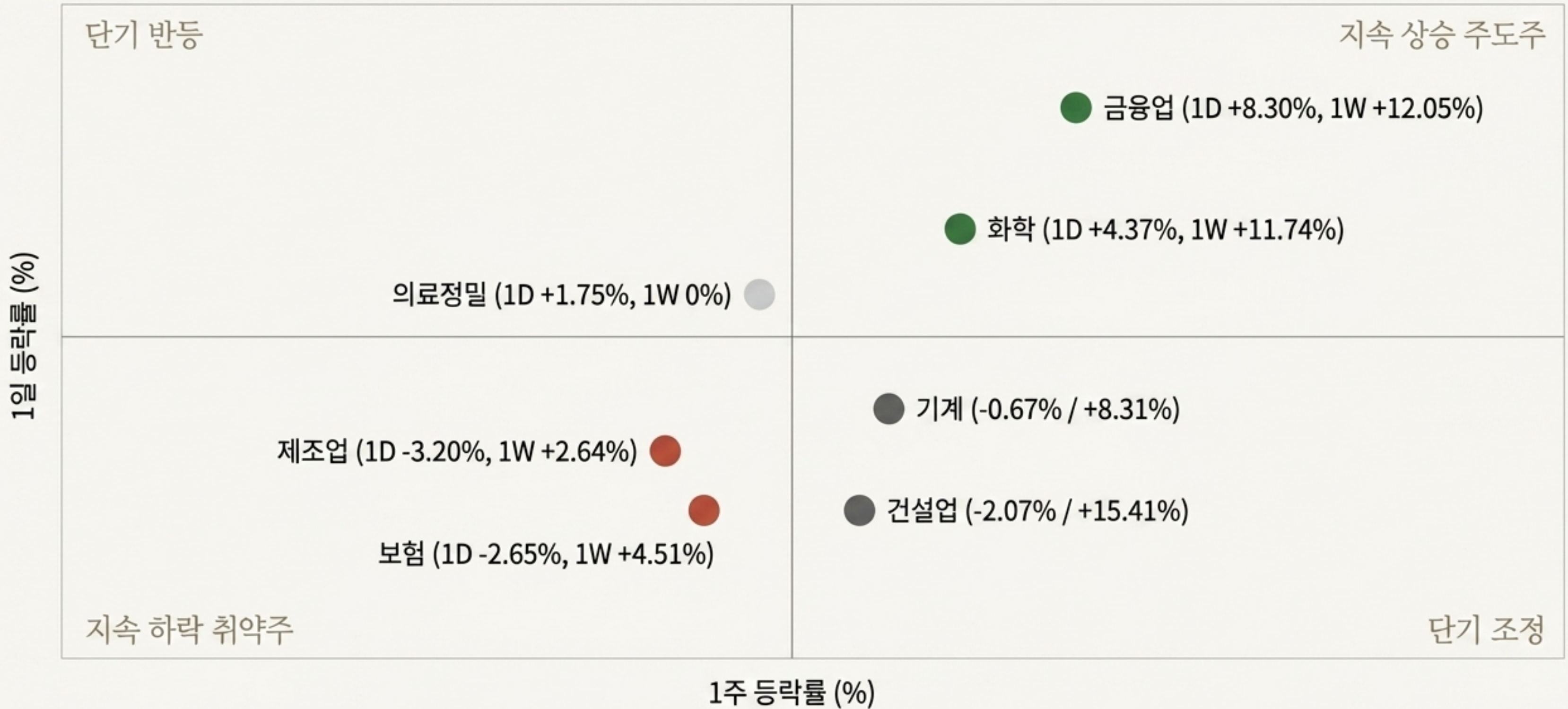
외국인: -1,737만주 (대규모 이탈)

개인: +63.4만주 / 기관: +3.7만주 (방어력 미흡)

코스피 신용융자 재증가에 따른 투심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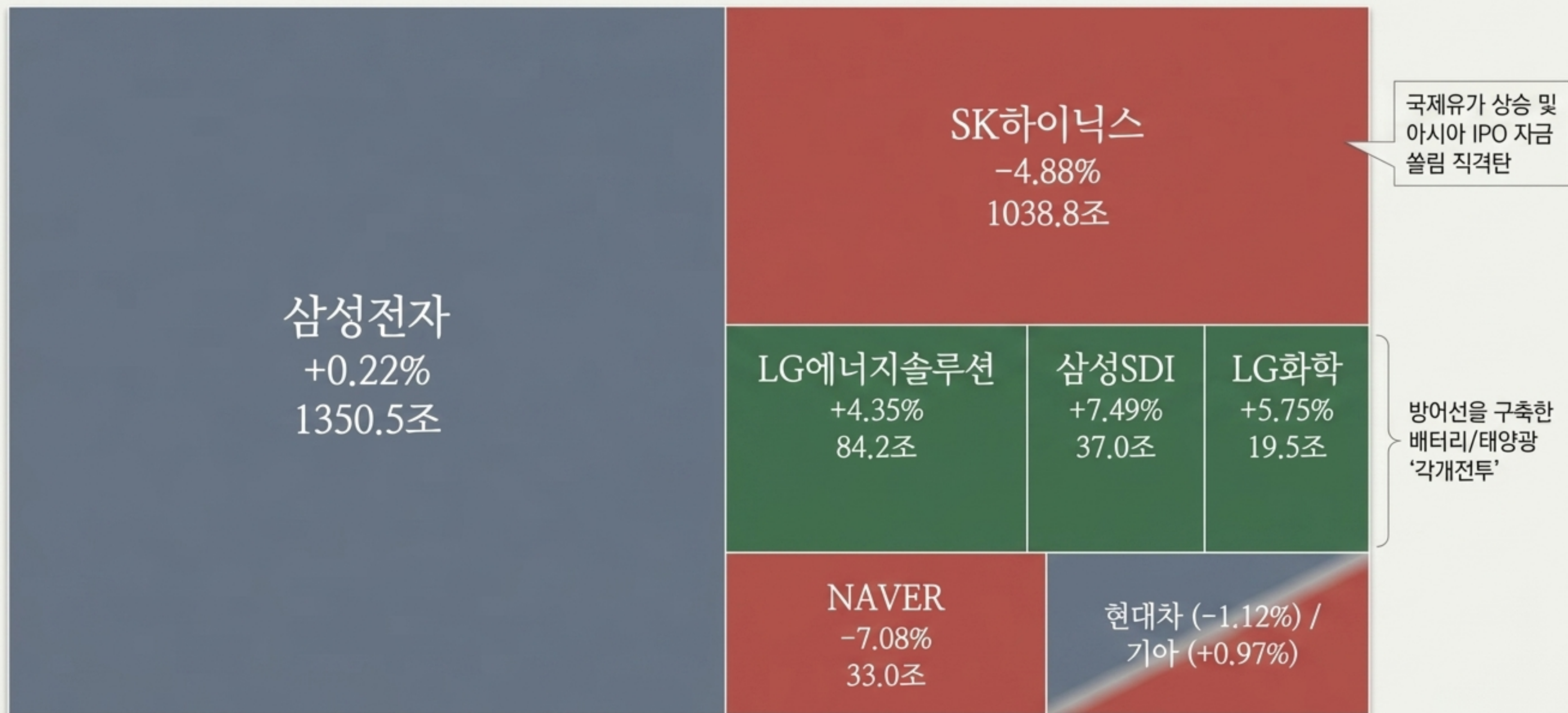
매크로 경계감으로 7주 연속 하락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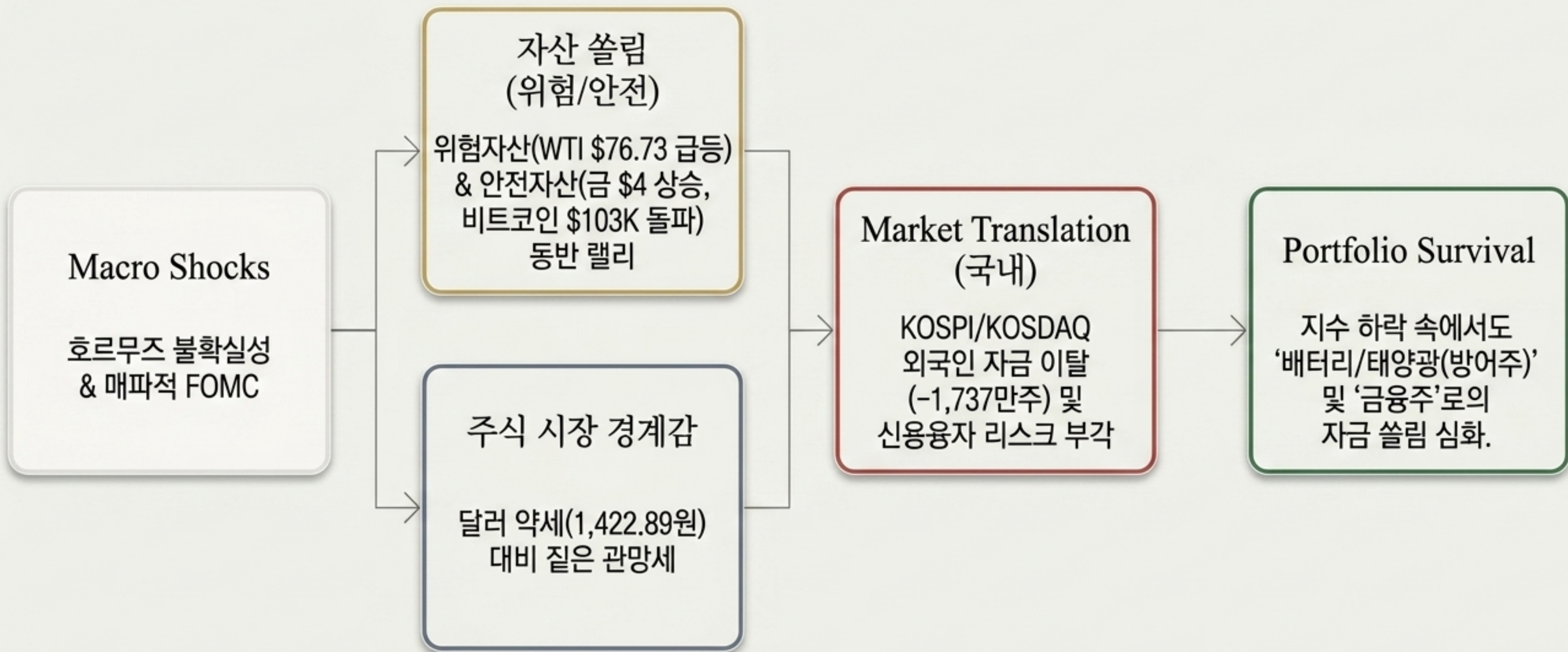


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'금융'과 '화학(2차전지 포함)' 섹터로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압축되고 있음.

엇갈린 대형주: 반도체의 부진 vs 2차전지의 약진



The Ripple Effect





매크로 헷징 (Macro Hedging)

- 유가 급등 및 미 10년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장세.
- 금,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 및 안전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필수.



국내 증시 선별적 접근 (Stock Picking)

- 지수 베팅 지양. ‘각개전투’ 중인 화학/2차전지(삼성SDI 등) 및 금융 방어주 위주의 압축 포트폴리오 구성.
-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는 단기 하방 리스크 유의.



미 증시 강세장 대비 (US Bull Market Prep)

- 고용/서비스업 지표 호조를 바탕으로 S&P 500 연말 강세(8,050선) 전망 유효.
- 지정학적 단기 노이즈 소멸 시, 나스닥 중심의 빠른 반등 모멘텀에 대비한 분할 매수.